

'휴식과 치유를 동시에'

순창군, 2019년까지 80여억원 투입 관광휴양지 '쉴랜드' 조성

순창군이 휴식과 치유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테마의 관광휴양촌 조성을 본격화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군은 건강장수연구소 일원을 쉼(SHIL)랜드로 이름으로 본격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쉼(SHIL)랜드는 Sunchang Health Institute Longevity의 약자로 인계면 인덕로 427-128번지 건강장수연구소 일원을 휴식과 치유를 융합한 대표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개발 프로젝트다. 2019년까지 약 80억원 정도가 투자된다.

순창의 좋은 물을 활용한 스파시설, 황토방갈로, 명상관은 물론 음용수시설, 벽천, 세족장 등을 갖춘 워터공원과 산책로 시냇물 등을 갖춘 수변공원, 산악초 공원 등 독특한 힐링관광시설도 들어선다. 일반 관광객은 물론 만성질환자 등이 머물며 치유와 관광

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특화화 했다. 군은 우선 워터공원과 무궁화동산, 수변공원에 본격 착수한 상태다.

올해 6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수곡과 산수곡 1,300주를 비롯해 다양한 치유식물을 식재하고 시냇물, 세족장, 음용수시설 등을 갖춘 산책로 등을 먼저 조성해 경관을 완성할 계획이다.

쉼(SHIL)랜드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힐링 숙박시설도 6월 중 본격 착공한다. 목조형 황토방갈로 15동을 짓는 사업에는 21억여원이 투자된다.

쉼랜드 체험시설의 한축인 스파시설은 노천에서 스파를 하는 느낌을 받게 하는 시설로 20억원이 투자되며, 2019년 사업을 추진해 그해말 완료할 예정이다.

하드웨어 구축사업과 함께 군은 운영관련 소프트웨어 사업도 강화한다. 지난해 (사)한국당뇨협회, 태초먹거리

학교와 쉼랜드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해 운영에 관해 협조하고 있다.

또 기존 노후준비교육 당교학교, 힐링프로그램도 내실화해 쉼랜드 운영과 접목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쉼랜드를 노후교육·힐링체험 중심으로 육성하기위해 노후생활 연구기반시설인 국립노화연구원도 유치할 계획이 있다.

군은 쉼랜드 조성이 완료되면 순창이 만성질환자는 물론 건강에 관심 있는 관광객을 대상으로한 전국적 치유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쉼랜드 개발이 본격화됐다"면서 "순창의 농특산물 좋은 물들 지역 건강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독특한 힐링 공간을 만들어 전국민이 순창에서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주민주도형 마을축제' 임실에서 열린다

20일부터 이틀간 삼계면 두월마을서 '말천방탈노래 한마음 축제' 개최

임실군의 주민주도형 마을축제가 열린다. 16일 임실군은 오롯이 주민이 직접 기획해 진행에서 출연까지 도맡는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2017년 말천방탈노래 한마음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두월마을 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하는 이 축제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삼계면 두월마을 일원에서

열린다. 삼계면 두월마을은 임실군에서도 청보리가 멋진 곳으로 손꼽히는 지역이다.

예로부터 마을에 쌀산(米山)이 있어 '되는 말'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두월리(斗月里)로 불리우는 곳이다.

올해로 3년째를 맞는 두월마을축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주민들이 한 마을 한뜻으로 기획단계부터 행사진

반을 추진하는 주민주도형 축제로 유명하다.

이 마을 주민들은 오래전 옛지명을 되살려 40여년째 삼계동요인 '말천방탈노래'를 지켜왔다.

이같은 노력으로 일환으로 3년 연속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축제 지원사업에 선정됐고, 지난 해에는 임실군 제1호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임실=진홍영 기자

판소리 문화, 인문학 강연으로 듣는다

내일 순창 인문독서 아카데미 '판소리 복원을 위하여'

박유진 명창, 김세종 명창 등 순창출신 명창들의 찬란했던 판소리 문화가 인문학 강연을 통해 되살아난다.

군은 '순창 판소리 복원을 위하여'란 주제로 근산대 최동현 국어국문학과 교수의 인문독서아카데미 첫 강좌가 오는 18일 순창군립도서관 문화강좌실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인문학 강좌는 7월 13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10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인문학 강좌는 찬란했던 순창 판소리의 옛 명성을 전민가의 강좌를 통해 생생하게 배우고 체험하면서 우리 판소리의 우수성을 느끼고 지역 주민에게 장금심도 느끼게 해주기 위해 마련했다.

최동현 교수는 국내 최초로 판소리 다섯 바탕을 영문으로 번역하고 판소리의 기원을 재해석하는

등 판소리 분야의 전국최고 권위자다.

순창과 판소리, 판소리의 기원, 소리꾼, 고수, 장단, 동편제와 서편제, 순창의 소리꾼과 유격지, 판소리의 세계화 등을 테마로 각 강좌마다 최고의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순창은 동편제와 서편제의 본고장으로 현대 판소리사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선보이고 있는 보성 소리의 뿌리뿐만 아니라 보성 소리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토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지역이다. 후기 8명창에 속하는 박유진, 김세종, 장재백 등을 배출한 곳이다.

조선 후기 판소리를 선도해 나갔던 8명창 중 3명이 순창 출신이란 점은 순창이 판소리의 본향이란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애항학학회, 장학증서 수여식

재단법인 임실군애항학학회(이사장 심민)는 2017년 임실군 애항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16일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심민 군수를 비롯해 장학생, 학부모 및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4월 19일 이사회를 개최해 최종 선발한 대학생 53명, 고등학생 10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올해는 전년 대비 각각 1백만원과 4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 100만원의 장학금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급한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을 비롯해 군부대와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군인자녀 지원 등 장학제도를 대폭 개선해 폭넓은 장학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내 마음속 애 나눔 캠페인

남원시(시장 이환주)와 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송동하)는 '내 마음속 애 나눔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에 남원시장(이환주)이 1호 후원자에 가입했다.

지난 3월 '내 마음속 애 집이 나타났다' 라는 슬로건으로 남원시와 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는 협약을 체결하고 위기가정 주거신축사업과 함께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나눔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캠페인 기간 동안 음면동 주민센터, 실과소, 유관기관, 기업, 단체 등이 후원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며 후원자를 모집한다.

또한 모집된 성금은 남원시 저소득층 생계비, 의료, 건강, 지역사회보호망 구축, 취약한 환경 개선 등 사회복지 분야에 지원할 방침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징수기간 운영

임실군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일소와 원활한 징수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올해 1기분 체납을 포함한 9천 12건, 2억4천5백여만원의 징수를 위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12개 읍·면 합동징수에 나선다.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위트니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부담금으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최장 9개월까지 1~2회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체납자의 재산조치를 실시해 자동차, 부동산 등을 압류 조치할 계획"이라며 기한 내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이환주 남원시장 21개 주요 사업현장 방문

이환주 남원시장은 21개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이 시장은 16일 오후 실·과·소장과 함께 시내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광벨트 구축사업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소정의 시간을 가졌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먼저 옛 남원역을 방문해 중앙공원 조성사업, 남원읍성 복원 정비, 생태계보전협력금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중앙공원 조성사업은 한국철도공사 소유인 중앙공원 부지를 매입하여 경관녹지, 산책로 조성 등 시민들에게 휴식,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며, 생태계보전협력금 사업은 전역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체자연 및 자연환경보전 등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남원읍성 복원 정비는 사업비 60억원을 들여 남원성 북문·북벽을 복원하는 사업이다.

이 밖에 그동안 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해 온 합파우 유원지 개발(김병중 미술관 건립, 덕유산 오강 만족숲 조성), 남원예촌·문화도시 조성, 도시재생사업 등 사업현장도 방문해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중앙공원 조성, 남원읍성 복원, 합파우 유원지 개발 등 남원 문화관광축사업이 완성되면 시내권 관광벨트 구축과 도심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장은 17일에도 사매 일반산업단지, 대산 쓰레기매립장 증설사업, 주성 화물공용차고지 조성,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사업, 지리산 허브밸리 등 10개 사업현장을 방문한다.

/남원=유영철 기자

재가암 환우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참여 안내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재가암환자의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고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2017년도 자조모임 프로그램을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총 7회 과정으로 매주 수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되며 남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가암환자이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이 참좋다. 순창 종합사무기기

TEL: 063-653-5002 H.P: 010-6633-4070

팀장 이동선 <렌탈전문>